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제595호

지면안내

04

사회  
합법? 도박? 혼란 빛는 홀덤법, 대책 시급

05

문화  
주류 트렌드를 선도하다

06-08

제38회 한성문학상

09

사람사  
다양한 경험으로 특별한 '나'를 완성하다



## 총장선출 시작, 4명 입후보

사진: 박희진 기자

▲상상관 9층에 위치한 총장실 및 비서팀 입구

본교 제11대 총장입후보자 응모서류 접수가 지난 24일 마감됐다. 총장입후보자는 ▲김상봉(사회과학부) 교수 ▲박준철(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이창원 총장 ▲주영혁(사회과학부) 교수다. 신임 총장은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의 예비후보자 선정과 교수·직원 투표를 통한 최종후보자 선정,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회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교수 대표와 이사회 대표 각 3인, 직원·학생·동문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총 9명의 선정위는 지난 11월 3일 총장 초빙절차, 선거지침 등을 마

련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법 인사무국이 총장입후보자 응모서류를 접수 받았다. 서류를 제출한 4명의 총장 입후보자는 오는 12월 8일 예비후보자 선정과정을 거친다. 선정된 예비후보자의 약력, 공약 등은 12월 11일 본교 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중 최종후보자 3인은 12월 13~15일에 진행되는 교수와 직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시행세칙 제13조 제3항에 의해 교수는 1인 1표, 직원은 1인 1/3표를 행사한다. 이후 개표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위가 최종후보자를 교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후보자는 시행세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12월 19일에 무순위로 이사회에 보고 된다. 이후 12월 29일, 이사회가 최종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진행 후 제11대 총장을 선임해 공표할 예정이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작돼, 4년간 재임한다.

전장배(법인사무국) 사무국장은 “총장선출 준비 과정에서 본교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총장선출이 시작됐으니 본교 구성원이 원하는 총장이 선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총선거, 전부 당선되며 종료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이하 총선거)’가 지난 22·23일 실시됐다. 이번 총선거에서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에서 단독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출범해 모두 당선됐다. 창의융합대학, 미래플러스대학은 출마한 후보자가 없었다.

제3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울’ 선본의 총학생회장 후보 장문수(컴공 3)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김재은(사회과학 2)이 찬성 3,514표(82.88%), 반대 676표(15.94%)로 당선됐다. 재적인원 6,433명 중 4,240명(65.91%)이 투표했다.

제40대 총대의원회 선거는 ‘백연’ 선본의 정외장 후보 김동규(사회과학 3)와 부외장 후보 황세윤(산공 3)이 찬성 13표(92.86%)와 반대 1표(7.14%)를 받아 당선됐다. 대의원회 상임위원의 재적인원 15명 중 14명(93.33%)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41대 학생복지위원회 선거는 재적인원 6,433명 중 4,246명(66.00%)이 투표에 참여해, ‘with’ 선본의 김범진(기계전자 3) 정외원장 후보와 김민서(뷰티 2) 부위원장 후보가 찬성 3,516표(82.81%), 반대 674표(15.87%)를 받으며 당선됐다.

제38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AXIS’ 선본의 정희정 후보 임정아(사회과학 2)와 부회장 후보 차예빈(인문 2)이 찬성 3,359표(79.13%)와 반대 823표(19.39%)를 기록하면서 당선됐다. 재적

인원 6,433명 중 4,245명(65.99%)이 투표했다.

제8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INTRO’ 선본의 김형기(인문 3) 정학생회장 후보와 이지우(인문 2) 부학생회장 후보가 선출됐다. 1,040명의 재적인원 중 724명(69.62%)이 투표해 찬성 607표(83.84%), 반대 104표(14.36%)로 집계됐다.

제28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청춘’ 선본이 찬성 812표(82.02%), 반대 166표(16.77%)를 받으며 김진형(사회과학 3) 정학생회장 후보와 박지승(사회과학 3) 부학생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재적인원은 1,361명이며, 990명(72.74%)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7대 디자인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FOCUS’ 선본의 정학생회장 후보 김서연(ICT 2)과 부학생회장 후보 강석환(ICT 2)이 당선됐다. 재적인원 1,200명 중 726명(60.50%)이 투표해 찬성 623표(85.81%), 반대 93표(12.81%)를 받았다.

제26대 IT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공명’ 선본의 김기현(컴공 2) 정학생회장 후보와 허준범(기계전자 2) 부학생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재적인원 2,088명 중 1,359명(65.09%)이 투표해 찬성 1,115표(82.05%), 반대 226표(16.63%)를 받았다.

이번 총선거는 트랙·학과(부) 학생회 투표도 함께 진행됐으며, 10개 트랙의 트랙학생회장과 6개 학과(부)의 정·부학생회장이 선출됐다.

권수연 기자 tndusk03@gmail.com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 학교 생활 전반의 고민 나는 총장과의 점심 식사

재학생이 총장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Lunch with the President’ 행사가 11월 6일과 11일 개최됐다. 행사는 ▲식사 ▲질의응답 ▲기념 촬영 및 기념품 지급의 순서대로 진행됐다. 6일에는 이창원 총장을 포함한 대학본부 관계자 13명과 재학생 8명이 참여했으며, 11일에는 대학본부 관계자 10명과 재학생 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상상관 12층에 위치한 ‘케이키친 한상’에서 점심 식사를 즐겼다. 이후 9층 대회의실에서 대학본부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본교의 트랙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가 확충되기를 바란다는 안건이 제기됐다. 이에 오진형(입학관리팀) 팀장은 “대입 관련 박람회 당시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트랙제에 대한 장점이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인성(미디어홍보팀) 팀장 역시 “『수능완성』 60만 부에 학교 광고를 실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시험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김두겸(사회과학 1) 학생은 “공인노무사시험을 준비하려 하는데, 진로취업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본교 고시반에는 공인노무사시험을 대비하는 반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며 “학교가 여러 시험 응시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조중집(진로취업지원팀) 팀장은 “전문 자격증 시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학생들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법&정책트랙에 민법 강의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도 존재했다. 김 학생은 “법&정책 트랙임에도 민법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며 “기본적인 민법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강의가 개설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민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최대한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흡연구역 외 장소에서 흡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김정환(사회과학 3) 학생은 “학내 흡연구역의 면적이 좁아 다수 학생이 흡연구역 밖으로 나와 흡연을 한다”며 “흡연구역 주변을 통행하는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디자인대학에서 흡연구역 공간 구축을 주제로 한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와이파이 및 e-class 서버 안정화를 요구한 학생도 있었다. 송태규(패션 1) 학생은 “와이파이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며 “최근 e-class 서버가 다운된 경

우도 있었기에 관련 사항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성길(정보화팀) 팀장은 “일일 와이파이 접속량이 많아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학생을 위해 오후 및 야간 시간대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태현(IT 1) 학생은 “대부분의 야간 학생 등교 시간인 오후 6시에 참여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다른 시간대보다 현저히 적다”고 전했다. 장지영(학생성공센터) 교육연구교수는 “학생 수요가 있다면 오후 시간대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도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본교의 ‘오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대학’ 슬로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 학생은 “대학을 상징하는 슬로건이 라기보다 광고 문구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 총장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다 보니 그러한 슬로건이 나왔다”며 “더 좋은 슬로건을 생각해 보겠다”고 전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확장돼야 한다는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전현준(사회과

학 2) 학생은 “수업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 교육연구교수는 “상시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측은 상상관 12층 공간을 더 많은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종범(컴공 3) 학생은 “상상관 12층의 공간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많다”며 “상상파크와 같은 학습공간으로 개편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재도(자산관리팀) 부팀장은 “상상파크나 상상베이스 등 별도로 마련된 학습공간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유학생 기숙사와 관련한 개선사항도 존재했다. 타이리마우(인문 2) 학생은 “학교에서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며 “기숙사 내 편의시설 또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일환(국제교류지원팀) 팀장은 “학교 사정상 모든 유학생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 생활에 대한 기본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부팀장은 “유학생 기숙사 내 별도의 휴게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문제는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케이따진아웅(뷰티 1) 학생은 “유학생의 경우 수강신청이 서투르다 보니 관련 사항을 학교 측에서 자세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현미(학사지원팀) 팀장은 “국제교류지원팀과 협의해 유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사항도 존재했다. 응웬티탄마이(뷰티 1) 학생은 “뷰티디자인 매니지먼트학과와 관련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병호(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센터장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교수진과 협의해 현장실습 기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두겸 학생은 “궁금한 사항을 학교에 물어볼 때는 각 부서의 세부 업무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다 보니 문의하기 어려웠다”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임기 종료, 새로운 시작...

〈편집자주〉  
올 한 해 활동한 학생자치기구의 임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에 새로운 한 해를 이룰 학생자치기구가 지난 24일 선출됐다. 학생자치기구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본사가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 2023학년도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의 공약 이행 상황을 ▲이행 완료 ▲부분 이행 ▲이행 중 ▲미이행 등의 척도로 분석했다. 총학생회 '이음'은 전체 12개의 공약 중 8개를 이행 완료 2024학년도를 이룰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와도 만나 본교 학생사회를 이룰 각오와 공약 등에 대해 들어봤다. 총학생회 '한울' 선본은 '기숙사 활성화'와 같은 예정이며, 동아리연합회 'AXIS' 선본은 학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동아리를 위한 '동아리 맞춤형 제휴 사업 진행' 공약을 내놓았다.

## “학생들의 필요 충족에 주력했습니다”



▲김승희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이음'(이하 총학)은 ▲단위별 총학생회비 사용액 안정화 ▲월별 총학생회 활동 보고 ▲편입생/복학생 대상 정보 제공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 ▲정기적 총학생회 간담회 실시 ▲오프라인 게시판 추가 설치 ▲학교 의무 디자인 공모전 실시/제작 ▲학교 주변 상권 제휴 ▲중고 책 정터 ▲에비군 버스 운행 ▲한성마라톤 실시 ▲특강 활성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총학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8건, 이행 중 2건, 미이행 2건이다.

“단위별 총학생회비 사용액 안정화” 공약을 통해 각 단위가 사용할 수 있는 총학생회비의 기준을 마련했다. 김승희(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최저 금액 30만 원에 단위별 총학생회비 납부 비율을 측정해 예산을 지급

했다”고 전했다. “편입생/복학생 대상 정보 제공” 공약은 편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을 통해 완료됐다. 김 회장은 “2월 23일 편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편입·복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학교 의무 디자인 공모전 실시/제작” 공약 또한 이행 완료됐다. ‘학당 공모전’을 개최해 디자인을 선정하고 학당 제작 및 신청 학생에 대한 배부까지 이뤄졌다.

“학교 주변 상권 제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sosao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휴를 맺은 10개 업체를 확인하고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중고 책 정터’도 진행했다. 미래융합사회

과대학 학생회 ‘사월’과 함께 8월 31일, 9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고 서적 플라마켓’을 운영해 공약을 이행했다. “에비군 버스 운행” 공약도 이행했다. 올해 상반기 에비군 환런이 진행됐을 때 에비군 버스를 편도로 운행했다. 이에 김 회장은 “에비군 환런 퇴소 시간이 상이해 복귀 버스를 운행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성 마라톤 실시” 공약도 이행 완료됐다. 지난 10월 8일 개최된 ‘한성 마라톤’은 본교 학생과 성복구민 모두 참여가 가능했다. “특강 활성화” 공약의 이행을 위해 ‘어도비 생초보 강의’를 개설했다. 김 회장은 “어도비 강의는 전공에 관계없이 많은 학생이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월별 총학생회 활동 보고”와 ‘오프라인 게시판 추가 설치’는 이행 중이다. 여름방학 기간인 7, 8월을 제외하고 매달 활동을 정리한 게시물이 총학 인스타그램에 게시됐다. 활동 보고는 12월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게시판 추가 설치’ 공약의 이행을 위해, 대학본부와 설치 장소 등에 대한 논의 후 연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 ‘정기적 총학생회 간담회 실시’ 공약은 미이행됐다. 김 회장은 “홈페이지 개설 준비 과정에서 보안설정이 어렵게 진행되어 공약이 이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학교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공약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 ‘정기적 총학생회 간담회 실시’ 공약은 미이행됐다. 김 회장은 “홈페이지 개설 준비 과정에서 보안설정이 어렵게 진행되어 공약이 이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학교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공약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 “다가가는 총대의원회가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박동민 총대의장

총대의원회 ‘청아’(이하 총대)는 ▲다가가는 총대의원회 ▲대의원 홍보 강화 ▲개편된 학생회와의 소통 ▲공석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 마련 ▲감사 담당자의 만족도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감사의 투명성 및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2023학년도 총대의원회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2건, 부분 이행 1건, 미이행 3건이었다.

총대가 이행 완료한 공약은 ‘감사 담당자의 만족도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감사의 투명성 및 접근성 향상’이다. 1, 2학기 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감사 담당자에 대한 만족도 등을 높일 수 있었다.

“감사의 투명성 및 접근성 향상” 공약은 학생회칙의 감사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이행 완료됐다. 감사 시행 세칙 제37~38조가 신설돼 감사자료의 보존 기간 및 열람 기준이 명확해졌다.

총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는 ‘다가가는 총대의원회’ 공약은 부분 이행했다. ‘다가가는 총대의원회’ 공약 사업 중 하나였던 ‘유쾌대 찾이 이벤트’는 대동제 등의 행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되지 않았다.

“대의원 홍보 강화” ▲개편된 학생회와의 소통 ▲공석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

마련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대의원 홍보 강화’의 세부사항으로 ‘대의원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SNS 공개’, ‘대의원 행사 결과와 SNS 게시’를 계획했으나 모두 미이행됐다. 광동민(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회의록 한글 파일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할 수 없어 나산의 메이리에 업로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 행사에 대한 총대 내부 수요 조사를 진행했을 때 대부분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대의원 행사의 진행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개편된 학생회와의 소통” 공약은 트래픽 생화 등 개편된 단위 학생회와 간담회를 진

행해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는 것이 기본 골자였다. 그러나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총대가 개편 단위 학생회와 개별적으로 소통해 문의 사항 등을 해결했다.

“공석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 마련”은 ‘출마자가 없을 경우 운영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한 규정을 학생회칙에 신설하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총대는 선조사를 진행했을 때 대부분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비대위가 총학생회 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다.

“다가가는 총대라는 지향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 “대면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나현채 학생복지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 ‘채움’(이하 학복위)은 ▲문화기행단 해외 추진 ▲무인반납함 설치 ▲학식당/노후시설 모니터링단 개설 ▲시험기간 학습공간 시간 연장 ▲자격증 업체 제휴 ▲추석 명절귀향버스 부활 ▲공용 템플릿 공모전 개최 공약을 선보였다. 학복위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2건, 이행 중 3건, 미이행 2건이다.

“학복위가 이행 완료한 공약은 ‘문화기행단 해외 추진’과 ‘자격증 업체 제휴’다. 문화기행단 해외 추진 공약은 지난 7월 문화 탐방 기행단을 일본으로 다녀오면서 이행 완료됐다.

“토익이나 컴퓨터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터넷 강의나 교재 등을 판매하는 ‘리플랜에듀’와 제휴를 맺으며 ‘자격증 업체 제휴’ 공약도 이행 완료됐다. 나현채(IT융합 4) 학생위원장은 “리플랜에듀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기에 전공에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인반납함 설치” ▲학식당/노후시설 모니터링단 개설 ▲시험기간 학습공간 시간 연장 공약은 이행 중이다. 학복위 상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대여물품을 반납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무인반납함을 제

작 중이며, 12월 중 학복위실 앞에 설치 예정이다.

“학식당과 노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단 개설”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나현채는 “1, 2학기 모두 모집했으나 어려움이 있어 원자가 부족해 운영되지 못했다. 2학기에는 1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활동했다. 모니터링단이 발견한 문제들을 대학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험기간 학습공간 시간 연장” 공약 이행을 위해 1학기 중·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기간 1주일 전에 상상파크의 운영 시간이 오후 7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연장 운영 2학기 기말고사 기간에도 연장 운

영될 예정이다. “‘추석 명절귀향버스 부활’과 ‘공용 템플릿 공모전 개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나현채는 “비공공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이 ‘출발’ 공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명절귀향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과대학마다 학습 분야가 달라 통일된 템플릿을 사용하는게 어려울 것’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학복위의 활동 전반에 대해 나 현위원장은 “대면 학교생활이 재학생화되는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동아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전수연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 ‘ReNewAll’(이하 동연)의 공약은 ▲동아리의 날 행사 개설 ▲동아리 대표자들의 정기적 개최 ▲부원 모집 시기 정례화였다. 동연은 ‘동아리의 날’ 행사 개설과 ‘부원 모집 시기 정례화’를 이행 완료했다. ‘동아리 대표자들의 정기적 개최’를 이행 중이다.

“동아리의 날 행사 개설” 공약은 대동제 첫째 날이 동아리의 날로 지정되며 이행 완료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동아리 활동도 대면으로 바뀐 데 따라, 동아리의 특색이 담긴

부스를 운영하고자 내세운 공약이다. 전수연(기계전자 4) 동연회장은 “동아리의 날은 3개 행사를 통한 정기적 활동, 동아리 발표를 위한 동아리 신입 기수 모집, 동아리 소속하는 동아리 연합 활동 등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원 모집 시기 정례화” 공약은 동아리 모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모집 기간을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5월 열린 제2차 전동대회에서 3월 초를 동아리 부원 모집 시기로 확정했다. 전 회장은 “부원 모집 시기 정례

화에 대한 내용을 동아리연합회칙에 규정했기 때문에, 정례화 패지 안전이 통과되지 않은 한 부원 모집 시기가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원을 상시 모집하는 동아리는 12월에서 1월 중으로 조사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전체동아리 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전동대회 정기적 개최’ 공약은 이행 중이다. 지난 4월 재선기에서 당선된 동연은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매달 전동대회를 진행했다. 전 회장

은 “모든 동아리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기에 회칙 개정이 가능했다. 동아리 불만 사항 해결 등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다”며 “12월에도 전동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동아리들의 참여가 없을 경우 평가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에 관한 안내 사항만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 학교생활이 재학생화되는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동연의 활동 전반에 대해 전 회장은 “공약 이외에도 동아리를 위한 대사업이나 동아리 소속제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만나봤다

의 공약 이행 정도,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가 내세운 공약의 내용과 목적 등에 대해 알아봤다. 했고 총대의원회 ‘청아’는 6개 공약 중 2개를 이행 완료했다. 학생복지위원회 ‘채움’은 7개 공약 중 2개를 이행 완료했고, 동아리연합회 ‘ReNewAll’은 3개 공약 중 2개를 이행 완료했다. 복지 분야의 공약에 힘을 실었다. 총대의원회 ‘백연’ 선본은 ‘대의원 설명회’ 등 대의원 자원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복지위원회 ‘with’ 선본은 ‘한성대학교 플로깅 행사’ 등 개성대 온 공약을 발전시킬

김승희 기자 meteor11@hansung.ac.kr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학생들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제3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울’ 선본의 장문수(컴공 3), 김재은(사회과학 2) 후보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한울은 ▲복지 ▲소통 ▲교육 ▲문화의 4개 분야에서 총 8개의 공약을 내세웠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숙사 활성화 ▲제휴업체 유지 및 확대 ▲안전한 학교생활 구축 등을 내놓았다. ‘기숙사 활성화’ 공약은 구글폼을 통해 상상빌리지와 우촌학사의 부 방정 시에 휴먼 여부를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험기간 2주 동안 우촌학사의 통금 시간 전면 해제 방안도 이 공약의 내용이다. ‘제휴업체 유지 및 확대’ 공약의 내용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학교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공약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회비 및 예산안 심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은 대의원의 혜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을 준비했다. 대의원에겐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김 당선자는 “10pt를 늘려 학기당 40pt가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의

“대의원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연은 학생회칙에 규정돼 있는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회비 및 예산안 심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은 대의원의 혜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을 준비했다. 대의원에겐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김 당선자는 “10pt를 늘려 학기당 40pt가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의

“대의원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연은 학생회칙에 규정돼 있는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회비 및 예산안 심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은 대의원의 혜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을 준비했다. 대의원에겐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김 당선자는 “10pt를 늘려 학기당 40pt가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의



▲제39대 총학생회에 당선된 장문수 총학생회장

##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40대 총대의원회 선거에서는 ‘백연’ 선본의 김동규(사회과학 3), 황세훈(산공 3) 후보가 각각 정·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백야는 ▲대의원 설명회 ▲대의원 역할 지침서 ▲대의원 혜택 증진 ▲총대의원회 카페 개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감사평가표 정립 ▲상임위원 감사 OT 공약 등을 선보였다.

“대의원 자원율을 높이기 위해 모집 이전에 ‘대의원 설명회’를 개최해 학생들에게 대의원의 역할과 혜택 등을 알릴 계획이다. 김 당선자는 “SNS 등을 통해 대의원 설명회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의원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연은 학생회칙에 규정돼 있는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회비 및 예산안 심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은 대의원의 혜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을 준비했다. 대의원에겐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김 당선자는 “10pt를 늘려 학기당 40pt가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의

“대의원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연은 학생회칙에 규정돼 있는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회비 및 예산안 심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은 대의원의 혜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을 준비했다. 대의원에겐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김 당선자는 “10pt를 늘려 학기당 40pt가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의

“대의원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연은 학생회칙에 규정돼 있는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회비 및 예산안 심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은 대의원의 혜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을 준비했다. 대의원에겐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김 당선자는 “10pt를 늘려 학기당 40pt가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의



▲제40대 총대의원회에 당선된 김동규 정의장

## “학생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41대 학생복지위원회 선거에서는 ‘with(이하 위드)’ 선본의 김민서(기계전자 3) 후보와 김민서(부드 2) 후보가 각각 정·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위드는 ▲환경 ▲복지 ▲안전 분야에서 총 8개의 공약을 내놓았다.

“환경 분야에서 ‘한성대학교 플로깅 행사’와 ‘그린 캠퍼스’ 공약을 선보였다. ▲팔고당 ▲오프 ▲그라피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스탬프가 찍히고, 10개의 스탬프가 모이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는 사업

이다. 김민서 당선자는 “홍보를 강화해 작년보다 많은 학생이 그린 캠퍼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동소문동 행복 기숙사 사생 교통비 지원 ▲(7)탑구관 매점 공간 휴게실 변환 ▲문화의 날 행사 진행 ▲학생회비 예산 심의 ▲안전한 학교생활 구축 등을 내놓았다.

“대의원 자원율을 높이기 위해 모집 이전에 ‘대의원 설명회’를 개최해 학생들에게 대의원의 역할과 혜택 등을 알릴 계획이다. 김 당선자는 “SNS 등을 통해 대의원 설명회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의원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연은 학생회칙에 규정돼 있는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회비 및 예산안 심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은 대의원의 혜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을 준비했다. 대의원에겐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김 당선자는 “10pt를 늘려 학기당 40pt가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의

“대의원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연은 학생회칙에 규정돼 있는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회비 및 예산안 심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은 대의원의 혜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을 준비했다. 대의원에겐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김 당선자는 “10pt를 늘려 학기당 40pt가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의



▲제41대 학생복지위원회에 당선된 김민서 정의위원

## “동아리들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제38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는 ‘AXIS(이하 엑시스)’ 선본의 임정아(사회과학 2), 차예민(인문 2) 후보가 각각 정·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엑시스는 공약을 ▲소통 ▲복지 ▲행사 및 활동 ▲감사로 구분해 총 5개의 공약을 선보였다.

“엑시스는 소통 분야에서 ‘동아리 건의 및 소통 창구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학생들로부터 민원이자 질문 등을 받는 창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학생들이 엑시스에 자주 물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당선자는 ‘한성대입구

“대의원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연은 학생회칙에 규정돼 있는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회비 및 예산안 심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은 대의원의 혜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을 준비했다. 대의원에겐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김 당선자는 “10pt를 늘려 학기당 40pt가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의

“대의원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연은 학생회칙에 규정돼 있는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회비 및 예산안 심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은 대의원의 혜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을 준비했다. 대의원에겐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김 당선자는 “10pt를 늘려 학기당 40pt가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의

“대의원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연은 학생회칙에 규정돼 있는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장 당선자는 “학생회비 및 예산안 심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은 대의원의 혜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혜택 증진’ 공약을 준비했다. 대의원에겐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김 당선자는 “10pt를 늘려 학기당 40pt가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의



▲제38대 동아리연합회에 당선된 임정아 정의장

# 합법? 도박? 혼란 빛는 홀덤โป๊กเกอร์, 대책 시급

‘홀덤โป๊กเกอร์’ 영입이 성행 중이다. 홀덤โป๊กเกอร์는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โป๊กเกอร์(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술과 같은 음료를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이다. 빠르게 승부가 결정되는 ‘텍사스 홀덤’이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에서 주로 진행된다. 홀덤 게임을 하며 획득한 칩으로는 홀덤โป๊กเกอร์ 안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 윤상연(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 교수는 “텍사스 홀덤은 카드 게임의 한 종류로 단순하고 직관적이기에 다양한 카드 게임 중에서도 선호된다”며 “홀덤โป๊กเกอร์라는 이름은 대명사처럼 쓰일 뿐, 실제로는 단순한 게임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홀덤โป๊กเกอร์가 증가하면서 불법도박이 벌어지는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도 늘어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서 허용하는 사행행위 이외의 사업은 ‘불법

사행산업’으로 정의된다. 획득한 칩을 식음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면 도박이 아니지만,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환전한다면 도박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에서는 이 같은 칩 환전이 벌어진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이 이뤄지는 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가 적발됐을 때, 도박 주체뿐 아니라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까지 처벌받는다. 우성근(카지노게임 연구소) 소장은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에서 행해지는 도박은 강원랜드, 스포츠투트 등 합법적인 도박과 달리 돈을 베풀하는 데 한도가 없어 도박꾼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며 “순수한 형태의 홀덤โป๊กเกอร์ 게임은 환전과 같은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에서는 고객들로부터 참가비를 모아 토너먼트 형식의 홀덤โป๊กเกอร์ 게임을

열어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불법도박이다.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으로 대회를 주최한 것으로 간주되며,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의 ‘도박장을 개설한 죄’도 성립된다. 이 같은 홀덤โป๊กเกอร์ 대회는 ‘시드권’이라고 불리는 대회 참가권을 기반으로 성행한다. 각각의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에서 개최하는 소규모의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 더 큰 대회의 시드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드권을 얻은 사람이 이를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도박으로 간주된다. 구매한 시드권으로 대회에 참여한다면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단법인 대한홀덤협회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 협회’는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경우는 불법도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드권

은 상당 10만 원가량의 가격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해 높은 순위에 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에,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를 찾는 도박꾼들에게 시드권의 가치가 높은 탓이다.

시드권 거래나 ‘첫 게임 무료’와 같은 이벤트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에서는 손쉽게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홀덤โป๊กเกอร์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칩을 더 지급하거나 무료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혜택으로 청년들을 유혹한다. 시드권을 판매하는 등 게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금전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열려 있다는 점도 청년층에게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상수(세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보니 사행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금전적인 욕구는 도박에 몰입하게 되는 이유인 동시에 도박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법에서 홀덤โป๊กเกอร์ 자체는 합법으로 인정하나 환전을 금지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가 청년층을 고객으로 만들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단속과 검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같이 익명성이 높은 플랫폼에서 고객을 미리 모집한다. 기사가 직접 오픈채팅 검색창에 ‘홀덤โป๊กเกอร์’라고 검색한 결과 다수의 오픈채팅방을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고 사전 예약을 받는 방식이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기도 했으며, 모바일 홀덤โป๊กเกอร์ 어플리케이션에 참가할 도박꾼을 모으기도 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장소가 어디인지 쉽게 공개하지 않고, 추천인 코드를 받아 사전 예약을 한 사람만 게임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폐쇄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우 소장은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들도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으로 숨어들며 단속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또한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의 단속과 검거를 어렵게 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홀덤โป๊กเกอร์ 현장에서 칩 환전이 이뤄지는 경우, 수사기관이 불시에 들이닥쳤을 때 불법도박의 증거를 은폐하기 어려워 중고 거래 플랫폼을 거치는 것이다. 우승자에게 명품 가방과 같은 고가의 현물을 상품으로 지급하고, 중고 거래로 위장해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가 해당 현물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단속이나 검거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 소

장은 “경찰이 CCTV를 확인해 추적하는 등 기존의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는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의 영업 신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다수의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영업 중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일반음식점은 허가 아닌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기에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가 이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도박장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최 교수는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불법도박을 자행하는 등 관련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행위가 불법도박인지 명확히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불법도박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청년층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합법과 불법이 공존하고 있기에, 합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를 즐기는 청년들 일부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불법도박을 저지러 수 있다. 나아가 도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널리 알려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드권을 거래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임을 일일이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를 이용하는 도박꾼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 음식로 숨어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국한된 신분비공개수사의 허용 범위를 불법도박으로 늘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된다. 경찰이 신분 위장을 통해 오픈채팅방에 잠입하거나 중고 거래 과정에 잠입해 수사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관련 정보가 교환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라고 역설했다.

‘홀덤โป๊กเกอร์’로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불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 홀덤โป๊กเกอร์업주의 테두리 안에 있도록 해 불법화되지 않게끔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 소장은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면 건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분비공개수사 :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하는 수사기법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그 법의 어제와 오늘

### 여전한 은폐 우려, 군사법원법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인해 지난 2021년 한 여성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 대한 판결이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은폐를 막기 위해 2021년 『군사법원법』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군대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사법원법』은 군인의 형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개정이 이뤄지기 전의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군사법원이 군인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었다.

2021년 발생한 여성 부사관의 성폭력 사건을 군 당국이 은폐·축소하려는 정황이 드러나자, 군대 내에서 벌어졌더라도 은폐·축소 우려가 있는 성폭력 사건 등은 민간에서 수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발생하며 『군사법원법』의 개정이 이뤄졌다. 제2조에 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면 일반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권을 갖는다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군검

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228조에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군대 내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성폭력 사건임을 인지하면, 그 즉시 사건을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은폐·축소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먼저, 군대 외부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할 성폭력 범죄가 무엇인지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제2조 제2항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정의를 성폭력범죄법 제2조와 제15조의2를 준용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성폭력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강간을 저지른 군인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강간 예비 단계에서 발각된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등 일부 성폭력 범죄의 재판이 군대 내부에서 이뤄질 여지가 남아있다. 강현석(세36보병사단) 법무참모는 “개정 『군사법원법』은 예비나 음모와 같이 놓치기 쉬운 범죄는 법률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법문에만 비춰 해석하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권이 형성된다”고 꼬집었다.

성폭력 범죄의 초동수사는 여전히 군대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성폭력 사건임을 인지해야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긴다고 규정하는 제228조 제3항으로 인해 사건 발생 초기 성폭력 혐의점 유무는

군대 내의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혐의의 유무를 살피는 초동수사는 군대 내에서 진행된다는 의미다. 강 법무참모는 “초동수사에 군이 개입하면 사건 은폐 및 축소에 대한 오해를 키울 수 있기에 초동수사도 즉각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성폭력 범죄의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려면 타 법률을 준용하지 않고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강 법무참모는 “미국 또한 최근에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내용을 개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범죄를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초동수사를 군대 내·외부 중 어느 곳에서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폭력 신고·제보 접수 시 즉각 민간에서 수사한다는 등의 규정을 추가해 초동수사부터 민간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간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조성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강 법무참모는 “민간과 군대의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초동수사의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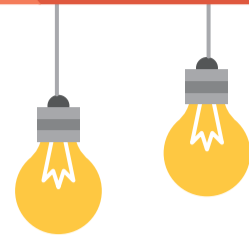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와인

하이볼

콜키지프리

논알코올



문화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나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 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자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단순히 술을 마시지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 술은 하나의 즐길 거리로 자리잡았다. 다가가기 어려운 고급 주류에서 친숙한 형태로 변화한 ‘와인’, 달달함과 예쁜 색감으로 이뤄진 ‘하이볼’부터 원하는 식당에서 원하는 술을 마시는 자유로움의 ‘콜키지 프리’, 그리고 술자리의 분위기만이라도 즐기려 나타난 ‘논알코올’ 술까지! 어느 세대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술을 즐기는 청년들의 주류 문화를 이해해보자.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주류 트렌드를 선도하다

## 주류 소비의 다채로운 변화

최근 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술을 즐긴다. 여러 사람을 만나며 소통하길 원하는 청년들은 술을 이용해 해당 자리를 만들어낸다. 술자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문화도 성행한다. 혼술은 주로 중장년층의 문화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을 겪으며 많은 이들을 만나지 못한 젊은 층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혼술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술자리가 일의 일환이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현재 청년들은 술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혼자 마시는 술자리도 늘어났기에 자신의 취향이 뚜렷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등 술을 누리는 방식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술뿐만 아니라 가게의 분위기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가게의 인테리어나 조명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분위기가 청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좌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잔잔한 클래식이나 흘러나오는 어두운 분위기의 와인바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얘기하고자 한다면 밝은 조명의 K-pop이 흘러나오는 술집을 방문하는 것이다.

‘소주 아니면 맥주’가 당연하던 10여 년 전 대학가와 다르게 최근에는 과일소주, 칵테일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자리를 꿰찼다. 과일소주나 칵테일 등 달달하지만 도수가 낮은 술을 많은 청년들이 부담없이 즐기는 것이다. 더불어 특정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의 맛을 띠는 이색 술이 다수 등장하기도 해 술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서 교수는 “최근 청년들은 도수 높은 위스키를 달달한 음료수와 섞어 마시는 형태로 술을 즐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이제는 친근한 와인

최근 청년들에게 더 이상 와인은 고급스럽고 다가가기 어렵지만 한 술이 아니다. 실제로 값비싼 와인을 이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게 됐다 때문이다. 고급 주류 판매처에서만 판매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일상에서도 손쉽게 와인을 구할 수 있고 가격대도 다양해진 덕분이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확대되며 와인의 공급처가 다양해졌다”며 “기업에서 대량으로 와인을 공급하는 게 가능해지며 와인을 값싸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지

대학교 아동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서정은 학생은 “어릴 적 나에게 와인은 부유한 사람들만이 마실 수 있다고 여기는 술이었지만, 현재는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술이 됐다”고 전했다.

접근성이 상승하며 와인에 대한 인식도 변했다. 이전 세대에서는 와인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진 채 복잡하게 소비했다면 현재 청년세대는 단순히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 비교적 쉽게 와인을 소비한다는 분석이다. 서 교수는 “이전 세대는 수업도 들으며 와인을 공부했다면, 청년세대는 와인을 파티에 이용하며 하나의 즐길 거리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년들의 인기로 힘입어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파는 가게가 많이 등장했다. 그중 유명 와인 가게에 기자가 직접 방문해 봤다. ‘보틀샵’ 형태로 다양한 와인을 판매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곳이었다. 고급스러운 내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비교적 값싼 와인들도 존재했다. 와인에 붙어 있는 라벨에 품종과 도수, 달달한 정도 등 세세한 정보가 다 적혀있었기에 라벨을 읽어보며 취향에 맞는 달달한 술을 골라냈다. 보틀샵은 일반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기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 칵테일에 담아낸 개성

자기 개성이 뚜렷한 청년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술을 찾는 데 열성적이다. 기존의 술만으로는 청년들의 독특한 개성을 담아내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술을 만들어 즐기는 ‘믹솔로지(Mixology)’가 청년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서 교수는 “청년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술을 창의적으로 소비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은 스스로 술 자체에 특별함을 담아내고자 하이볼을 택했다. 하이볼은 위스키와 탄산수를 섞은 칵테일의 한 종류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이른바 ‘알쓰’도 도전해볼만한 술이다. 자신의 취향대로 위스키와 달달한 음료수의 양을 조절하기에 기존의 쓴맛이 강하던 술과는 달리 비교적 편하게 마실 수 있다. 전혜진(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 사이에서 도수가 낮은 술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수가 낮은 술을 더 편하게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러한 하이볼 소비 증가에 개인 맞춤형 하이볼을 판매하는 식당도 등장했다.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취향을 말하면 그에 맞춰 하이볼을 즉시 제조해 주는 식당이다. 해당 식당에서는 특정 과일 향을 원하거나 탄산이 약한 것을 선호한다면 취향에 맞게 제조해 준다. 이렇게 취향저격된 하이볼을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청년들을 매료시켰다.

다양한 하이볼 레시피가 SNS를 타고 많은 청년들에게 다가가기도 했다. 자신의 취향대로 하이볼을 만드는 경우도 많지만, 특정 하이볼의 맛을 내는 레시피가 공유되며 직접 가게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잡한 유리잔에 각종 과일 등으로 화려하게 세팅된 하이볼은 흔히 말하는 인스타그래머블한 사진으로 담아내기 적격이다. 유명 칵테일 맛을 내며 인스타그래머블 사진을 건지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직접 하이볼 만들기에도 도전한다.

이에 기자도 직접 하이볼을 만들어봤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기자에게 알코올보다 음료수의 양을 더 많이 해 도수가 최대한 낮도록 조정했다. 또한 인스타그래머블한 사진을 건지기 위해 잘 자른 레몬도 얹어줬다. 사진으로 보니 가게에서 파는 하이볼 못지않은 모양이었다. 기자가 원하는 대로, 넣고 싶은 재료를 마음껏 넣을 수 있었기에 시중에서 파는 술과는 다르게 ‘나만의’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 콜키지 프리를 통해 느끼는 자유로움

맛의 자유로움을 넘어 공간의 자유로움을 찾아 ‘콜키지 프리(Corkage Free)’가 등장했다. 식당에서 팔지 않는 술을 가져와 서빙을 해주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하는 기존의 ‘콜키지’에서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콜키지 프리가 나타난 것이다. 자신이 마시고 싶은 술을 원하는 식당에서 마실 수 있게 됐다. 좋아하는 식당이지만 원하는 술을 팔지 않아 아쉬웠던 청년들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식당에서 원하는 술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서 교수는 “유럽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관행”이라며 “우리나라도 외부에서 술을 가지고 오는 문화가 새롭게 정착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급상승한 술 가격이 콜키지 프리 유행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물가가 오르며 외식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콜키지 프리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외부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준다. 서 학생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

보다 비싸서 부담스러웠던 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전 교수는 “청년들의 외식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직접 콜키지 프리가 가능한 식당을 방문했다. 가기 전 음식과 잘 어울릴 만한 일본 술인 ‘사케’를 사 들고 갔다. 약간의 달달한 향이 느껴지는 사케를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선 사케를 따로 팔지 않아 항상 아쉬움이 남았던 탓이다. 하지만 콜키지 프리를 통해 기자가 원하는 사케를 먹고 싶은 음식을 파는 가게에서 함께 먹을 수 있었다. 비교적 특이한 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몸소 느꼈다.

## 논알코올, 술인 듯 아닌 듯

술을 마시고 싶지만 높은 도수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한 술도 존재한다. 도수가 거의 없지만 알코올 함은 그대로인 ‘논알코올 술’이다. 논알코올 술은 잘 마시지 못하지만 술자리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청년들이 주로 찾는다. 술자리가 늘어나며 잦은 피로를 느끼게 된 청년들이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자 논알코올 술을 소비한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술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알코올 섭취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논알코올 술”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이들도 나타났기에 논알코올 술이 더욱 인기다. 건강을 챙기는 이들이 많아지며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청년들이 증가한 것이다. 숙취를 유발하는 음주를 자제하지만 청년들은 취하는 듯한 술의 분위기라도 느끼고자 논알코올 술을 찾는다. 서 학생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취하는 느낌을 받고 싶기에 종종 논알코올 술을 마신다”고 전했다.

기자가 직접 논알코올 술을 마셔보기 위해 판매하는 식당에 갔다. 생각보다 논알코올 술을 파는 식당은 드물었기에 ‘대체 어떤 맛일까’ 하는 궁금증이 커진 채 술을 시켰다. 논알코올 칵테일을 시켰지만 청포도 에이드 같은 느낌으로 술이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았다. 탄산이 강한 에이드에 알코올 향이 살짝 나는 음료수 같은 맛이였다. 이러한 논알코올 술을 통해 술이 아닌 술자리의 분위기에 취해보는 것도 나름의 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인스타그래머블 :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Instagramable) 이라는 뜻.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할 수 있는(able)의 합성어.



사진: 김유성 기자

▲와인을 고르는 기자



사진: 황서연 기자

▲기자가 만든 하이볼이다.



사진: 신지원 기자

▲외부에서 구매한 술을 갖고 가게로 들어가는 기자



사진: 김유성 기자

▲논알코올 술을 마시는 기자

# 제38회 한성문학상

## 소설 부문

수 상 | 배지호(인문 3)  
 심 사 | 김성달(한국소설가협회) 소설가  
 삽 화 | 김서현(CT 1)

## 시 부문

수 상 | 이세현(인문 2)  
 심 사 | 문태준 시인  
 삽 화 | 김지은(CT 2)



### 시 부문 당선작

## 수선집

이세현

골목 앞길을 지키고 있는 수선집 항씨 아저씨는  
 하루 종일 다리미로 꺾꺾 셔츠를 눌러펴다가  
 집에 가서는 누룽지를 팔팔 끓여 대충 먹고는 잠에 든다

다 헤진 메리야스가 매주 전화가 온다던 딸이  
 재작년 겨울부터 오지 않는 일을 알려주었다  
 송송 구멍이 뚫려 있는 아저씨의 가슴팍에  
 어두한 피부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남루히 걸친 파란 남방에는 주름이 쳐서 밑단이 짧아졌다  
 늘어나는 메리야스와 짧아지는 남방이 겹치는 선에는  
 그들이 져있었고  
 아저씨는 그들이 싫어 눈이 세차게 오는 날에는  
 수선집 문을 닫아버린다

아저씨 셔츠요  
 놓고 가, 다려다 내일 걸어둘게  
 내일 눈 많이 온대요  
 언제까지 닫아놓을 거야, 내일 와요

### 시 부문 심사평 : 정밀한 묘사를 통해 서정의 온기 높게 보여줘

제38회 한성문학상의 시 부문 응모작들을 세심하게 읽었다. 무엇보다 젊은 학생들의 패기와 깊은 사유, 신선하고 탄력 있는 상상력을 접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만 활달한 사유와 상상력에 어떤 일개 같은 것을 두어서 시상을 조금은 구심적으로 조직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전반적으로 있었다.

당선작 선정에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한 작품은 「편집증」, 「겨울나기」, 「수선집」이었다. 함께 응모한 작품들이 대체로 부드러운 언어를 활용해 사랑의 감정을 직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 「편집증」은 흔들리고 요동치는 사변(思辨)의 거센 파도, 즉 격랑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양극단을 오가는 감정과 생각의 전개는 박진감이 있었다. 깨진 거울 같이 파편화된 감정과 생각의 조각들이 묘하게 시상의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더러는 시어들이 다소 직설적이어서 호흡이 없지 않았다.

「겨울나기」는 한 시기 새의 거처였던 나무가 이제는 나무이 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부재에 대해 사유하는 작

품으로 이해되었다. 햇빛은 나무로부터 과거의 시간에 있었던 '뺨', '울음', '빛' 등을 복원하는 상상력, 참고 견디는 것들에 대한 담담한 관찰, 그리고 하얀 고요를 읽어내는 시선이 좋았다. 그러나 이 시의 3연에는 주제와 지시 대상이 불분명한 점이 있었다.

「수선집」은 생활과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서정의 온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또한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정밀한 눈도 뛰어난 작품이었다. 예를 들어 "걸친 남방에는 주름이 쳐서 밑단이 짧아졌다"라는 시구는 묘사의 묘미를 잘 살려내고 있었다. 게다가 이런 장점은 다른 시편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작품들의 수준이 고른 점으로 보아서 습작의 경험이 많은 학생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특징들과 미덕을 감안하여 「수선집」을 제38회 한성문학상 시 부문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을 축하한다. 아울러 이번 현상공모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모든 학생들에게 더 큰 정진을 당부 드린다.

문태준 시인

### 시 부문 수상소감



이세현(인문 2)

제가 13번째 살고 있는 동네 길목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습니다. 미용실, 수선집, 정육점, 말은 나눠보지 못했지만 익숙한 어른들의 얼굴에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나는 것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알만큼 저는 그들을 자주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성문학상에 투고할 시를 쓰려고 생각하다가 문득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사람들은 지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상상하다 적어낸 시가 '수선집'입니다. 수선집은

이야기와 장면이 쉽게 그려지고 누구나 황 씨 아저씨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쓰고 싶었습니다.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개인적인 고민이 많았고 생각을 정리하고자 시작한 글쓰기는 여러 경험을 하게 해줬고 시 한 구절에 꽂혀 시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몇 자 적었던 것이 제가 쓰고 있는 시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마음을 다해 오래 지켜보고 깎아내리는 과정을 겪는 것이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상 속 이야기와 제 안에 있는 감정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를 통해 공감하게 하고 언제나 따뜻하게 읽어내겠습니다.

일상 속 누군가의 이야기를 시로 엮고자 하는 제 꿈이 한성문학상을 통해 첫 발걸음을 담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바쁘게 준비했지만 서로의 작품을 읽어주고 이야기 나눴던 이무기 부원들께 감사합니다. 같은 시절을 살아가면서 같은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인연들을 만나게 된 것을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본교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큼 '콘텐츠 제작'에도 열정을 쏟는 교수가 있다. 바로 문학문화콘텐츠학과의 이효준(36) 겸임교수로, 유튜브 채널 '수상한녀석들'의 대표이기도 하다. 현재 그는 본교에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수상한녀석들'은 일반 대중 대상의 몰래카메라 콘텐츠로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약 1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2억 7천만여 회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여러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콘텐츠 경쟁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다양한 경험을 해본은 물론, 그러한 경험을 콘텐츠에 녹여내 보고 끊임없이 실패해야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조언한다. 이 대표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이러한 조언을 남기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테다. 그가 서 있는 카메라 앞으로, 강의 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다양한 경험으로 특별한 '나'를 완성하다

### 유튜브 채널 '수상한녀석들' 이효준 대표



사진 : 신지원 기자

이 대표는 어린 시절 아역배우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의 다분한 끼를 알아본 어머니가 아역배우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 덕에 이 대표는 아역배우라는 다소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아역배우 경험을 통해 그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진로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그는 자연스레 영화를 떠올렸다. 청소년 시절의 이 대표는 '영화광'이었다. 매일같이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를 빌려 볼 정도였고, 영화를 감상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저는 진로를 조금 빨리 정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많이 보고 배우로 활동한 경험도 있다 보니 주변에서도 영화나 영상 관련한 일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죠. 특히 아역배우 경험은 저도 모르는 새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어릴 적 단련된 카메라 앞에서의 경험 덕분에 콘텐츠를 촬영할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연기할 수 있었죠."

결국 그는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진학하게 됐다. 촬영이나 편집 등 영상을 제작하는 경험은 그가 대학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이다. 상상하는 바를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자신감을 기르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전공을 살려 영상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하는 등, 실무를 경험하며 관련 기술을 축적해 나갔다.

"제가 만들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와 영화 간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이 출연해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큰 틀은 같죠. 그래서 대학 시절의 편집, 촬영, 기획 등을 맡은 경험이 추후에 당연히 도움이 됐고요.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상상하는 바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대학에서 영상 제작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그러한 고민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에게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방송영화제작과 학과장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의받은 것이다. 교수자의 공백이 발생한 강의실을 한 학기만 맡아달라는 다소 급한 제안이었지만 본래 가르치는 일에 곧장

보람을 느끼던 그는 제의를 수락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그의 신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결정이었다. 이 대표는 열과 성을 다해 강의를 준비했고, 수강한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계속해서 교수직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젊은 세대와 소통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대 초반의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본교 문학문화콘텐츠학과에서도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12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수상한녀석들의 높은 인기, 약 7년의 유튜브 활동 경력 등을 인정받아 콘텐츠 제작 분야의 강의를 담당할 교수자로 초빙됐다. 그는 지금도 학생들에게서 최근 시청자의 니즈 등을 파악한다.

"작년부터 한성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1학기에는 '방송영상 크리에이터의 세계'라는 과목을 맡아서 1인 미디어 제작과 관련한 부분을 가르쳤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죠. 20대의 학생들과 소통하다 보면 그들의 아이디어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요. 젊은 세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이 만든 콘텐츠를 보고 놀란 적이 정말 많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도 있죠. 청년 층과의 소통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꿈을 처음 꾸게 된 시기는 2010년 무렵이다. 해외에서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한 이 대표는 국내에서도 유튜브가 콘텐츠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 예상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동료로부터 우연히 들게 된 말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일하게 된 계기는 바로 '영우'와의 만남이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2015년, 영우는 카메라 다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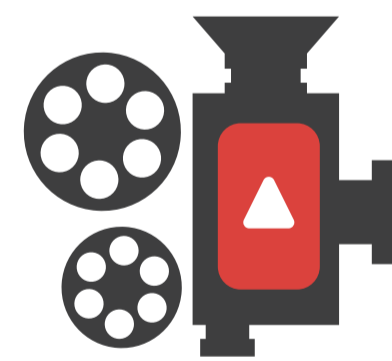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이 대표를 찾아왔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와 영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공통의 꿈 덕분에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후 이 대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동업을 하자는 영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는 '블루오션'이었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콘텐츠를 주력으로 삼기로 결정했고, 2016년에 수상한 녀석들 채널을 개설했다.

"저와 영우 모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금세 친해졌어요. 영우를 만나기 전, 우연히 해외에서 유튜브가 인기 있다는 것을 듣고 혼자서 유튜브 활동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저 혼자 유튜브 활동을 그만하던 2015년경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의 수는 지금에 비해 적은 편이거든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채널 중 하나였던 '영국남자 Korean Englishman' 채널을 보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콘텐츠를 선보일지 생각했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며 그 나라의 문화 등을 배우는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했어요."

이 대표는 유튜브에 갓 뛰어들었던 시기의 영상이 최근의 영상과 비교하면 촬영 구도, 화질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회상한다. 이후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 대표가 깨달은 바는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어야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원하는 장면을 얻는 과정이 쉽지 않은 몰래카메라 콘텐츠의 특성상 끊임없는 시도만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여타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또한 계속해서 시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다면 머릿속에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보라고도 조언한다. 기획만 하는 것과 직접 나가서 촬영하고 편집해 보는 경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콘텐츠 한 장면을 뽑기 위해서 수십 번 촬영해야 해요. 촬영 대상자 물색, 촬영 구도 설정, 영상 사용 허가 등 여러 가지 경우가 모두 맞아야 한 장면을 촬영할 수 있어



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영상이 하루에 하나 나오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영상을 찍는 것만이 방법이지요. 안되더라도 될 때까지 시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작은 콘텐츠라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콘텐츠를 머릿속으로만 기획하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이나 생각으로만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표가 직접 알아본 부분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교수를 병행해 본 이 대표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과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가지 일에 과도하게 매몰된다면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놓칠 수 있기에, 수많은 경험을 쌓아보라고 조언한다.

"한 가지 경험만 하면 본인이 잘하는 일이나 행복한 일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죠. 다양한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분야의 직업에 종사해 보며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더 값진다고 생각해요. 직접 경험해 본 여러 가지 일이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 타인은 겪어보지 않은 그 경험들로부터 자신만의 특별한 콘텐츠가 생기기도 하죠."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지금, 이 대표는 개인적 경험을 콘텐츠로 승화시킨다면 대중의 이목을 끄는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본인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 타인이 보기에는 창의적인 경험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타인은 해보지 못한 경험이기에 영상을 시청하는 입장에서 더 새롭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거리낌 없이 보여줘야 타인에게 창의적인 콘텐츠로 보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가 영상에서 시민에게 말을 걸며 장난치는 모습은 학생 시절 친구들에게 장난치던 저와 닮아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것 없지만 시청자가 보기에는 새로운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만의 경험을 제일 잘 살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가장 창의적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곧 창의적인 콘텐츠의 밑거름인 거고요."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영상 매체를 자주 접하라고 조언한다. 남들은 독창적이라고 느낄만한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려면 영상 콘텐츠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영상을 보다 보면 배경음악이나 자막, 효과 등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의 역할과 중요성이 보인다고 말한다.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귀감이 될 만한 영상을 많이 봐야 해요. 저도 몰래카메라 콘텐츠 제작하겠다고 결정한 후에는 해외 몰래카메라 콘텐츠를 많이 참고했어요. 좋은 영상을 보고 직접 따라 만들어 보는 것도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영상의 배경음악뿐만 아니라 자막이나 효과 등 구성 요소를 유심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콘텐츠의 질을 좌우하는 건 영상에 대한 제작자의 감각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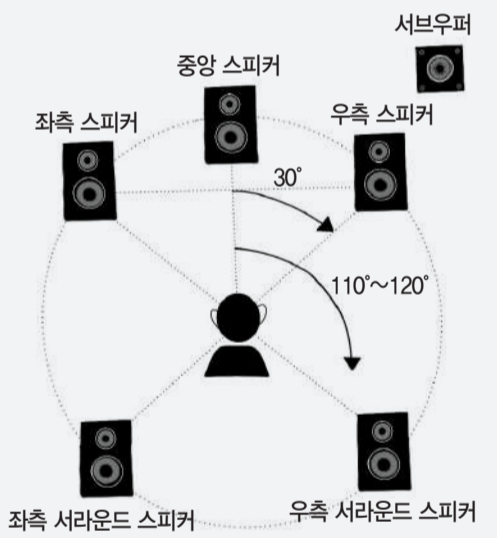
# 입체음향, 소리에 공간을 입히다

나무 아래에서 새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시선은 저절로 나무 위로 향한다. 소리가 만들어 내는 공간에 대한 감각 덕분이다. 영화관에서 스크린 속 주인공의 뒤에서 소리가 나면, 관객석 뒤쪽에 위치한 스피커로 소리를 내보냄으로써 공간 감각을 살려준다. 최근에는 OTT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공간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음향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은 입체감을 구현해 몰입도를 높일 수 있어 쓰임새가 확대되는 추세다. 어떻게 하면 소리를 통해 입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의 원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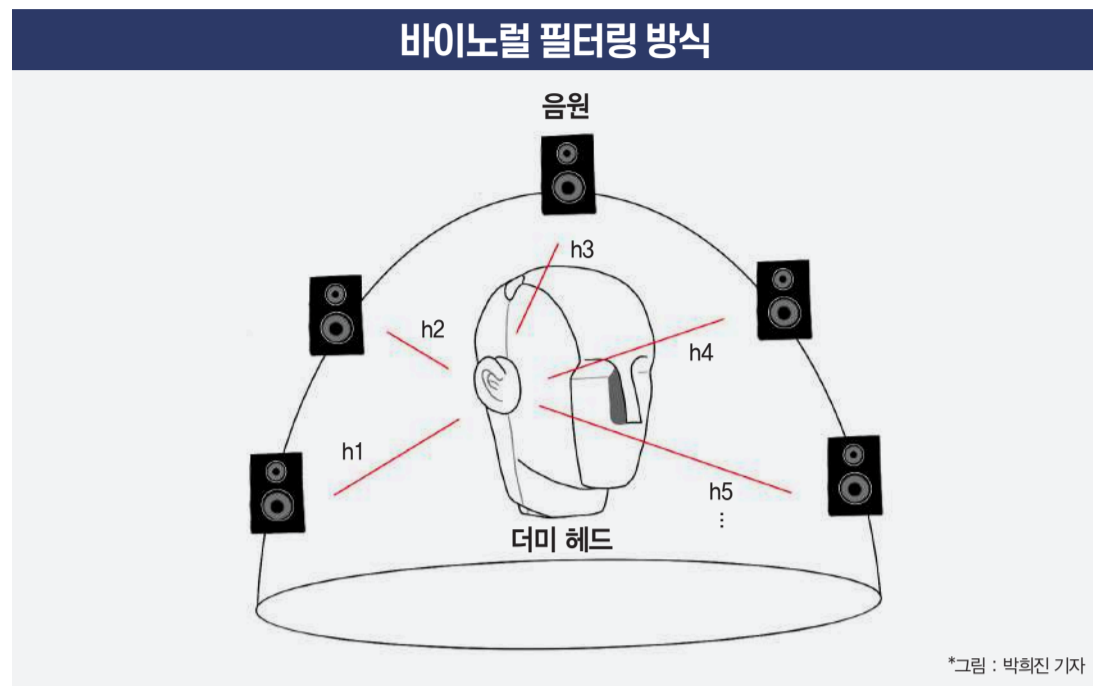
‘입체음향’이란 청취자가 음원(音源)이 발생하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향감 ▲거리감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음향이다. 이는 소리의 특성을 활용해 만들어진다. 소리는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청취자의 각 귀에 도달하는 시간과 크기가 다르다. 때문에 소리를 통해 방향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오예민(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소리가 발생한 위치와 소리를 듣는 위치 간의 거리에 따라 소리의 세기가 변한다”며 “세기 차이를 통해 소리의 방향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리를 통해 방향감과 거리감뿐 아니라 공간감까지 느껴져야 입체음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리는 크게 ▲직접음 ▲반사음 ▲잔향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반사음과 잔향음이 소리에 공간감을 부여한다. 직접음이란 말 그대로 음원으로부터 발생해 직접 귀로 전달되는 소리이며, 반사음은 직접음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돼 발생하는 소리를 말한다. 공간에서 직접음이 발생하면 사물에 부딪혀 여러 차례 반사를 거듭하는데, 처음 반사되는 소리가 ‘초기반사음’이다. 초기반사음 이후의 반사음은 음원에서 직접음이 그친 이후에도 공간에 남아 들리게 되는데, 이를 ‘잔향음’이라고 일컫는다. 이처럼 소리는 여러 물체에 반사되는 과정을 거치며 공간에 울려 퍼지게 되고, 공간감을 자아낸다.

## 서라운드 5.1채널 방식



\*그림 : 박희진 기자



\*그림 : 박희진 기자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기술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서라운드(Surround)’가 그 중 하나다. 서라운드는 3개 이상의 ‘채널’(Channel)로 소리를 내는 기술이며, 청취자를 중심으로 놓고 사방에 채널을 배치함으로써 입체음향을 만든다. 서라운드는 통상 5.1채널로 구성되며, 청취자의 정면 좌·우·중앙, 후면 좌·우에 위치한 5개의 채널과 ‘서브우퍼’라는 보조 채널을 함께 배치한다. 5개의 채널로도 모든 음역대와 주파수\*\*의 소리를 나타낼 수 있지만, 저주파 영역을 온전히 구현해 웅장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서브우퍼도 필수적이다. 때문에 서브우퍼는 소리가 아닌 진동 수준의 낮은 주파수를 만들어내기에 0.1채널로 간주한다. 김성영(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서라운드는 예전부터 주로 영화관에서 쓰이는 기술”이라며 “입체음향 기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서라운드 기술을 통해 최적의 입체음향을 감상하려면 청취자를 중심으로 각 채널 간에 일정한 각도와 거리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최적화된 청취지점을 ‘스위트스팟(Sweet Spot)’이라고 말한다. 서라운드의 5.1채널에서 스위트스팟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스피커를 기준으로 정면에 있는 좌·우 스피커가 각각 30°를 이루고, 후면에 있는 좌·우 서라운드 스피커는 중앙 스피커를 중심으로 110°~120° 정도의 각을 이루도록 뒤야 한다. 스위트스팟을 구현하는 과정은 각 채널과 청취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도와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서라운드는 여러 개의 채널을 통해 공간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지만, 채널 여러 개를 구비하는 데 공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여러 대의 스피커를 놓을 수 있는 장소와 이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수용(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음향제작과) 교수는 “여러 대의 스피커를 활용하면 명확한 공간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공간상에서 스피커를 배치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장비를 필요로 하는 서라운드의 제약 극복하기 위해 ‘바이노럴(Binaural)’ 기술이 등장했다. 두 귀로 듣는다는 의미의 바이노럴은 사람의 머리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소리를 추출하고, 헤드폰에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기술을 뜻한다. 이를 위해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녹음 장치인 ‘더미 헤드(Dummy Head)’가 필요하다. 더미 헤드의 귀는 그 자체로 녹음이 가능한 마이크이거나 별도로 귀에 마이크를 달아 사용하기 때문에, 더미헤드로 녹음을 진행하면 헤드폰 환경으로 입체음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녹음한 그대로 들을 수 있을 뿐, 자유로운 변형은 불가능하다. 개 짖는 소리를 더미헤드의 왼쪽 앞에서, 닭 우는 소리를 더미헤드의 오른쪽 뒤에서 녹음했을 경우, 개 소리와 닭 소리가 나는 위치를 변환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석진(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는 “실제로 녹음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입체음향 효과를 얻기에 유리하다”면서도 “수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더미 헤드 녹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머리전달함수’\*\*\*를 이용한 ‘필터링’ 방식이 이용된다. 필터링이란 더미 헤드로 녹음한 소리를 머리전달함수의 값으로 변환시켜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것으로, 소리가 나는 위치를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다. 먼저 더미헤드로 똑같은 소리를 음원 위치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녹음한다. 이후 청취자에게 같은 소리를 들려줘도 음원이 가까이 있으면 주파수가 더 높은 소리로 들리고, 음원이 멀리 있으면 주파수가 낮은 소리로 들린다. 즉 음원과 청취자의 귀가 이루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녹음된 소리의 주파수, 머리전달함수값이 달라지게 된다. 이석진 교수는 “주파수는 소리의 거리감과 방향감에 관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머리전달함수는 그

러한 주파수에 대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필터링 방식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음상 정위’가 그 중 하나다. 머리전달함수의 값을 이용해 입체음향이 아닌 단순음에 거리감과 방향감을 부여하는 과정을 음상 정위라고 한다. 음상 정위를 통해 단순음을 ‘위치음’이나 ‘이동음’으로 바꿀 수 있다. 위치음은 음원이 한 곳으로 고정돼 있는 소리이며, 이동음은 음원이 이동하는 소리를 말한다. 음원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위치의 머리전달함수값과 단순음을 합성곱\*\*\*\*하면 위치음을 구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소리가 이동하는 궤적에 해당하는 머리전달함수값들을 각각 단순음과 합성곱하면 이동음을 생성시킬 수 있다.

완전한 입체음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사음과 잔향음을 인위적으로 제어해 공간감을 조절하는 ‘음장’\*\*\*\*\* 제어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음장 제어를 위해 반사음과 잔향음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잔향기’라는 장치가 사용된다. 잔향기는 ▲초기반사음 생성기 ▲컴필터 ▲전역통과필터로 이뤄진다. 입체음향으로 만들려는 단순음을 초기반사음 생성기에 들려주면, 해당 단순음에 대한 초기반사음이 생성된다. 이 초기반사음을 컴필터에 들려주면 여러 장애물에 반사된 잔향음이 만들어진다. 생성된 초기반사음과 잔향음은 전역통과필터에서 적절히 섞이면서 인위적인 느낌을 덜어내고, 최종적으로 잔향기를 통과해 공간감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장치를 통해 반사음을 만들어 청취자가 마치 공간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한 크기로 제작된 더미 헤드가 다양한 청취자들의 신체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사람마다 머리의 특성이 다르기에, 더미 헤드와 청취자의 머리 모양의 차이가 클수록 입체음향의 오차도 커진다는 의미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개인화된 머리전달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이수용 교수는 “헤드폰을 통한 입체음향의 경우 두 귀의 거리, 귓바퀴 등 사람마다 다른 신체구조로 인한 변화를 완벽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진 교수는 “개인별 특성에 맞추기 위한 머리전달함수 개선 연구도 시도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발전하고 있는 입체음향 기술이 콘텐츠 산업뿐 아니라 기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기에 전망이 밝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스테레오에 머물러 있는 난청 치료 기술을 입체음향으로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채널 : 독립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음향장치  
 \*\*주파수 : 진동과 같이 주기를 띠는 현상이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횟수  
 \*\*\*머리전달함수 : 음원에서 귀까지 도달하는 소리의 주파수 등에 관한 정보  
 \*\*\*\*합성곱 : 하나의 함수를 반전 이동시킨 후 또 다른 함수를 곱하고, 이를 구간에 대해 적분해 새로운 함수식을 구하는 연산  
 \*\*\*\*\*음장 : 음원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 제보하기

학생의 권리를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Tel : 02)760-4186  
 Fax : 02)760-4389  
 E-mail : hansungnews@gmail.com  
 KakaoTalk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에게

‘이번에는 또 어느 대학이야?’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회의의 안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대학언론과 대학본부(이하 본부)가 갈등을 빚는 일은 비밀비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성대학교 방송국(이하 HBS)도 본부와 진통을 겪었다. HBS가 10월 25일 기사사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내보낸 이후, 학내 익명 커뮤니티는 해당 내용에 관한 이야기로 뜨거웠다. HBS와 본부는 보도 내용, 취재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HBS는 11월 8일 활동 중단까지 선언했지만, 24일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본부가 대학언론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일도 빈번하다.

일부 대학이 대학언론의 취재, 발행 등을 방해할 때는 통상 ‘학교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학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이라는 2가지 입장을 내놓는다. 대학언론도 대학의 일원이기에 학교의 부정적인 면모를 들춰 분란을 조장한다면 누워서 침을 뱉는 일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실제로 대학언론의 보도 내용을 접한 기성언론이 대학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대서특필할 일도 있고, 대학언론의 기사를 읽고 학내 구성원 간에 인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누군가의 잠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단점까지 품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대학언론의 기자들은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가 모든 구성원의 권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학교가 고쳐나 가야 할 점을 찾고 구성원에게 알린다. 구성원은 대학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우리대학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내보이는 등, 대학언론은 건설적인 대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광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은 대학언론의 역할을 존중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존중과 지원의 첫 단계는 대학언론이 정당한 취재 과정을 거쳐 사실을 보도하는 일을 막지 않는 것이다. 그리 대단한 존중과 지원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요구임은 분명하다. 취재의 결과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구성원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창구를 막는 일과 다름없다.

사실을 보도할 권리가 수호될 때, 대학언론은 건강한 비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한 대학언론의 건강한 비판은 대학이 더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어떤 사회든 지속되려면 비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언론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일 터다.

대학언론의 진흥은 곧 대학의 발전이다. 두 주체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려야 바라볼 수 없다. 대학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고 대학은 이를 구성원의 소중한 의견이자 쓴소리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윈-윈(win-win)의 관계가 모든 대학에 자리잡을 수 있기를 염원해 본다.

정성혁 편집국장



본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故 방영환 씨를 기리는 49재와 투쟁 문화제가 지난 23일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개최됐다. 방 씨를 볼 속으로 내문 '사납금제'는 법인 택시 노동자가 당일 수입 일부를 회사에 지불하는 제도로, 현재는 폐지됐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가 과로하는 등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회사가 전체 수익에서 일부를 제한 후, 이를 월급으로 지급하는 변형 사납금제가 횡행해 노동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어떠한 노동자든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변형 사납금제가 근절되도록 시급히 정책을 보완 하길 바란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 기사수첩

2250만 원. 최근 해외 유명 가수 내한공연의 '암표' 가격이다. 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는 25만 원으로, 90배나 가격이 뛰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공연이 개최되면서 암표가 활개를 치고 있다.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입장권, 탑승권 등을 암표라고 말한다. 암표상이 대량으로 정가에 표를 구매하면, 이를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되판다. 인기 있는 공연이나 경기 입장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암표를 사고 파는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의 암표 거래는 온라인에서 주로 이뤄진다.

암표는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다. 공연 등의 인터넷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진 현상도 암표상이 많은 양의 표를

## 넓은 법률에 판치는 암표

사들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기회를 빼앗긴 소비자는 비싼 금액으로 표를 구하거나, 관람 등을 아예 포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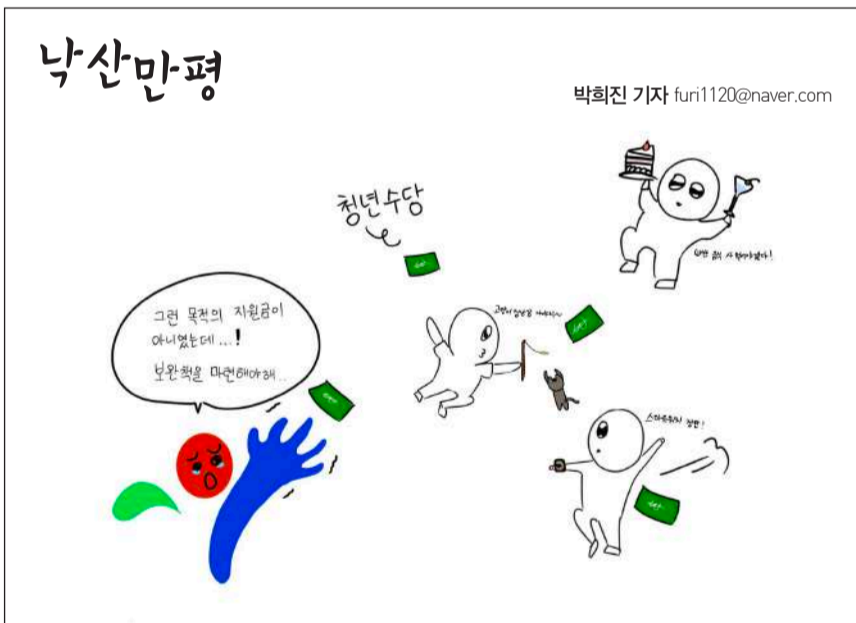
이에 더해 최근에는 암표 거래가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가짜 표를 보내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지만, 익명성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단속과 처벌도 어렵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온라인 암표를 제재하지 못한다. 현행 법률이 공연장이나 탑승장 등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무터, 정류장 등에서 암표를 판매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

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온라인은 법률의 사각지대가 된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암표 매매 또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컴퓨터 기술을 악용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등장하는 등, 온라인에서의 암표 매매 방식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도 암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당한 수준의 처벌이라고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여야 한다. 국회가 미적거리는 새에 소비자, 공연 등의 주최자,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행정 당국 등 암표상을 제외한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 더 이상 암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법률 정비를 서두르길 바란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기자사령

- 임 부장기자 김유성(인문 2) 신지원(인문 3) 황서연(상상력 1)
- 퇴 정 기자 박건희(인문 1)
- 정 기자 권수연(인문 1)

## 동정란

- 나은미(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나 교수는 지난 23~24일 최보결의 총의 학교에서 주관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치유인문학'에서 '나를 보살피는 글쓰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최경희(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  
최 교수는 지난 10월 21일 2023 추계한국유통학회에서 「3D Dynamic Fashion Design Development Using Digital Technology and its Potential in Online Platform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11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개최된 2023국제유통학회에서 전문가 부문 우수디자인상을 수상했다.

## ■ 낙산에 올라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이 나라가 재건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낭마가 돼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4년 만에 초고속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소위 말하는 이러한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능력주의에 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마당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인력밖에 없었고 그러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능력주의가 필요했다. 능력주의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과 인정 시스템을 말한다. 능력에 대한 정의에는 많은 견해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학벌이 곧 능력으로 여겨졌다.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능력주의

##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야 할 때

는 나름의 혁명이었다. 족벌주의와 연고주의가 판을 치던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기회와 평등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실제로 당시의 계급을 타파하고 계층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고성장의 시기가 막을 내리며 능력주의는 오히려 또 다른 세습주의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능력있는 이가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일차원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선 그만큼의 교육이 필요한데, 개천에서 난 용의 가족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가난한 이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능력주의를 통해 기득권을 차지한 부모들은 어떻게든 자녀에게 기득권을 물려주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중산층

혹은 하류층이 된다. 결국 능력주의는 소득 불평등을 낳게 되는 것이다. 소득불평등 외에도 청년실업이나 자기 착취와 같은 것들은 능력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 되고는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능력주의를 가지고 가되, 능력주의가 일으킨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세습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능력주의가 또 다른 세습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능력주의에 아예 배제돼 버리는 이들을 최대한 비슷한 출발선상에 서도록 도와주고 기존의 능력주의,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기 위해 경쟁 및 성공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은우(사회과학 2)

## ■ 의화정

내연기관차는 화석연료의 폭발로 발생한 힘이 피스톤에 가해져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발생시키고 이 힘을 이용해 이동하는 장치이다. 내가 중학교 때 기술 수업에서 이와 같은 내연기관의 원리를 배우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피스톤 운동을 이용해 차를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할 수 있을까였다. 즉, 피스톤 운동을 바퀴에 그대로 전달하면 차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며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원리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그런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원리가 단박에 이해가 됐다. 그것은 바로 크랭크축이라는 부품이었는데, 이 부품은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원운동으로 바꿔 회전운동을 일으키고, 이 회전운동이 바퀴에 전달돼 차

## 내 인생의 크랭크축

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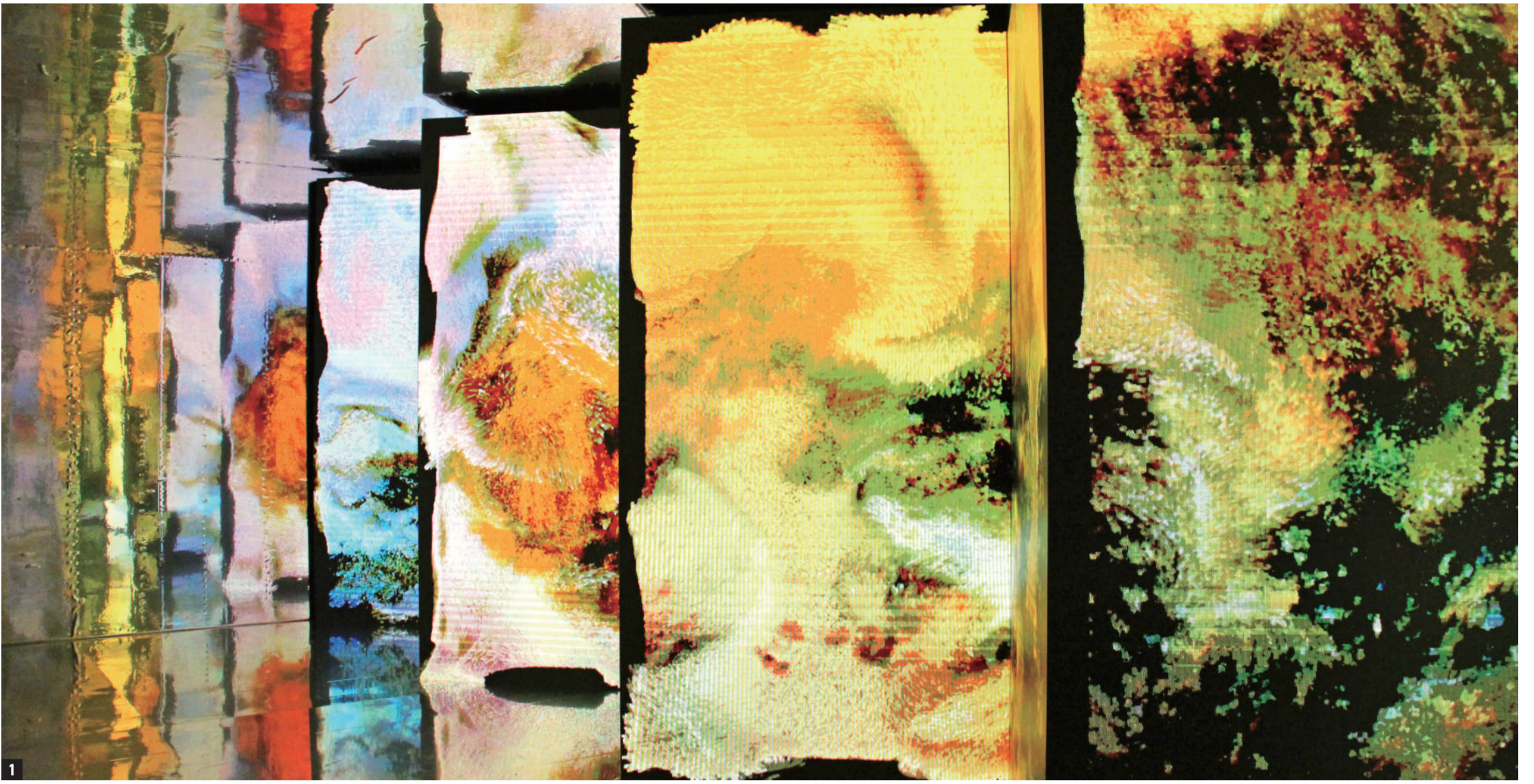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피스톤의 왕복 운동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가며 찾아온다. 그런데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가지만 나쁜 일과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는 좌절하고 뒷걸음질 친다면 결국 내가 목표하는 바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 사실 좋은 일과 기쁜 일만큼이나 나쁜 일과 슬픈 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으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더불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지 더는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며,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성공확률을 극대화하고, 성공 후에도 교만에 빠지는 부작용을 예방해준다.

결국,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내 인생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크랭크축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인생은 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 ChatGPT4 감수 및 평가:  
"귀하의 글은 창의성, 구조, 언어 사용, 메시지 전달력이 뛰어나지만, 약간의 개선 여지가 있어 100점 만점에 85점을 부여합니다."

정성훈(시응용학과) 교수



## 미디어아트 : 그 황홀경 속으로



예술은 더 이상 정적이지 않다. 보기만 할 뿐 만지는 것은 금지되던 예술 작품들이 되레 어색하게 만드는 예술이 있으니 말이다. 바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미디어아트'다. 미디어아트란 ▲영상 ▲레이저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예술 작품을 뜻한다. 미디어아트는 직접 시청각 등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더 자연스럽고 특별하다.

전시회로 미디어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미디어아트의 거장들이 뜬 것이다. '럭스: 시적해상도' 전시인데, 분리된 공간마다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중 인공지능으로 재탄생시킨 중국 산수화는 8폭 병풍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관람자로 하여금 눈을 잃게 만든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경복궁역 안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구성된 미디어아트 전시가 존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마련한 'K-컬처 뮤지엄'이다. 은하수 속을 떠다니는 다양한 문화재 사이로 발아래를 수놓은 별들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동작하며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실내 전시를 넘어 미디어아트는 건물 외벽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매직캐슬 라이즈업' 맵핑쇼는 3D 레이저 영상이 거대한 매직캐슬을 화려하게 치장한다. 오케스트라 기반 음악에 따라 매직캐슬 자체가 불꽃놀이를 하기에 이른다. 놀이공원뿐 아니라 일상 속 거리에서도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다. 도심 속 LED 조명 화면으로 지나가는 이의 발을 붙잡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 외관을 둘러싼 '미디어 파사드'가 그 주인공이다. 몇 년째 크리스마스 명소로 자리 잡은 해당 장소의 화면 속 영상은 그 자체로 연말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종강과 함께 다가오는 연말, 바라만 봐도 황홀해지는 미디어아트에 매료돼 보자.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 1 럭스: 시적해상도 전시 중 카오 유시(제임스)의 'AI 산수화'
- 2 K-컬처 뮤지엄 전시 중 작품 '어제의 내일'
- 3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매직캐슬 라이즈업' 맵핑쇼
- 4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미디어 파사드'